

# 원교로 만법 섭수하니 비로소 세상일 헛됨을 깨달았노라

## <43> 원제국의 공신 아율초재(耶律楚材) 거사

<종용록(從容錄)> 찬술자인 만송행수(萬松行秀) 선사의 재가 제자 가운데에는 <명도집설>을 찬술한 이순보 거사 외에 원(元)의 공신으로 유명한 아율초재(1190~1244) 거사가 있다. 하지만 아율초재 거사는 이순보 거사와는 상당한 사상적 차별 속에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아율초재 거사는 자가 진경(晉卿)이고, 법호는 종원(從源)이며, 담연거사(湛然居士)의 호를 사용해 역대로 '담연 거사'로 잘 알려져 있다. 거란족으로 요(遼)나라 왕족 출신이었으며, 대대로 연경(燕京; 현 베이징)에 거주했다. 요나라 폐망 후 거사의 부친 아율복관(耶律覆官)은 금(金)나라 관리가 돼 상서우승(尙書右丞)의 관직을 지냈다. <원사(元史)> 권145에 실린 거사의 전기에 따르면, (아율초재 거사는) 어려서부터 '군서(群書)에 매우 박학해 천문 지리 율력(律曆) 술수(術數) 석로(釋老) 의학과 점술 등 다양한 학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거사는 17세에 진사에 급제했고, 24세에 개주(開州) 동지(同知)에 임명됐다. 그 이듬해 몽고군이 연경을 공격해 선종(宣宗)은 변(汴; 지금의 개봉)으로 천도했고, 거사는 좌우원외랑(左右員外郎)에 임명돼 연경을 지켰다. 이듬해(1215) 몽고군이 연경을 함락시키자 거사는 한가롭게 집에

버리고 더욱 조사의 도리를 구하는데 마음을 쏟았다. 그러던 중 이전의 일을 다시 가지고 성안사로 찾아갔더니, 징공 화상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어 내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선사는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공은 요직에 있었고, 또한 유학자는 불서(佛書)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어록을 뒤져 이야기거리(談柄)나 삼기 때문에 내가 감히 지적하고 혼내지를 못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과연 본분사(本分事)로써 내게 묻는데, 내가 어찌 옛날의 허물을 답습하여 입 아프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미 늙었고 유학에 조금도 통하지 못하니, 그대를 가르칠 수가 없다. 만송 노인이 계시는데, 그는 유가와 불교를 겸비하고 종설(宗說; 宗通과 說通)에도 모두 정통하며 변제(變才)에 걸림이 없으니, 그대가 찾아뵙도록 해라' 라고 했다."

이 서문에서 거사가 만송 선사를 만나게 된 인연이 짐작된다. <종용록> 서문에는 다시 만송 선사를 만난 이후의 수행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나는 만송 노인을 찾아뵙고 사람들과 집안일을 끊어버리고, 혹은 한나 무더위에라도 참선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잠자는 것을 폐하고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며 3년을 지냈



그림 · 김흥인

### 성안원조 선사 만나 스승의 인연 맺고 불교 귀의

### '원' 발전에 중요한 역할, 임종 이르러 전 재산 사찰에 보시

머물며 불교공부에 전념했다.

거사의 불교와의 인연은 본래 연경의 원외랑을 제수 받았을 무렵 성안원조(聖安圓照) 선사를 만나 스승의 인연을 맺고 불교에 귀의했다. 후에 원조 선사는 거사에게 만송행수 선사를 소개했다. 거사는 이러한 스승의 인연을 <종용록>의 서문에 상세히 적었다.

"지난날 내가 경사(京師; 燕京)에 있을 때 매우 많은 선배(禪伯)들이 있었지만, 오직 성안사(聖安寺)장공(澄公) 화상만이 정신과 기개가 엄숙하고 명료하며 언사(言辭)가 넓고 분명했다. 나는 유독 그분만을 존중해 자주 찾아뵙고 조사의 도리를 물었다. 여러 차례 옛 존속(尊宿)들의 어록 가운데 얻을 만한 것을 물었다. 징공 화상은 간혹 인정해 주었고, 나는 또한 스스로 얻는 바가 있었다. 바로 우환(憂患)을 만난 이래로 공명(功名)의 마음은 높은 누각에 묶어

다. 외람되게도 선사의 법은(法恩)을 입고 제자로 인정받아서 '담연거사' '종원'이라고 불렸다."

이로부터 거사가 만송 선사를 잘알해 치열하게 수행했음이 여실히 짐작된다. 또한 이러한 점은 거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의 만송 선사 가 쓴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담연 거사는 27세부터 만송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법을 위해 생사(生死)를 잊었고, 세간의 명예에 움직이지 않고 슬픔과 기쁨에도 빠지지 않았다. 담연은 그 마음을 크게 모아서 신묘한 경지를 정밀하게 참구하여 옛날에 배웠던 학문을 모두 버리고 추위와 더위, 밤과 낮이 없이 참구하기를 3년 만에 그 도를 다했다. 만송은 그에게 법의·불자(佛子)와 계승을 내리고 담연 거사 종원이라고 칭했다."

이는 거사가 쓴 <종용록> 서문과 완전히 일치한다. 또한 만송 선사를 만난 것이 거사의 27세(1216

라고 하는데, 이때는 몽고군이 연경을 함락시킨 다음해이다. 따라서 거사가 만송행수를 만나 맹렬히 수행한 시기는 원외랑이란 직함으로 연경을 수비하다가 함락되자 오히려 불교공부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의 태조 징기스칸이 거사의 명성을 듣고 태조 13년(1218)에 거사를 불러 서역정벌에 함께 수행토록 했다. 이후 태조 22년(1227)에 이르러서야 거사가 다시 연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징기스칸을 수행해 서역을 정벌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거사는 징기스칸을 수행하며 상당한 공적을 쌓아 태종이 즉위 후 2년(1241)에 재상인 중서령(中書省)에 봉해졌다.

징기스칸을 수행하게 되면서 만송 선사와 이별하게 되자 거사나 선사 모두 크게 슬퍼했지만, 거사의 구도는 전쟁터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사는 만송 선사에게 서신을 통해 평지장가(平智正覺) 선사가 찬술한 <송고백칙(頌古百則)>에 '평창(評唱)'을 칭했고, 만송 선사는 시자 이지(離知)에게 필록(筆錄)하도록 해서 태조 18년(1223) 서역에 있는 거사에게 보냈으며, 그 다음해 거사는 서문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 바로 <종용록>인데, 또한 <만송노인평창전동화상송고종용암록(萬松老人評唱天童和尚頌古從容庵錄)>·<천동각화상송

고종용암록(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으로도 칭해진다. 이는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의 <벽암록(碧巖錄)>과 함께 선종 2대 보전(寶典)으로 중시되는데, <벽암록>이 입제종의 선풍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종용록>은 바로 조동종 선풍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종용록>이 출현한 배후에는 바로 두터운 사제의 정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율초재 거사의 전쟁터 군영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참다운 구도의 마음이 짐작된다.

그렇다면 과연 거사의 선행적 수준은 어떠한가? 만송 선사가 '인가'하여 '법의'와 '불자'를 내려줄 정도였으니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당년에 불서(佛書)를 좋아해 경론(經論)과 주석서들을 궁구했으며, 공안(公案)을 빌려 이야기거리로 삼아 활두선(滑頭禪)을 희롱했다. 그러나 일단 만송 선사를 만난 후에는 느려터진 말이 재침을 맞은 듯했다. 모든 일들을 다 쓸어버리고 옷을 추스르기를 3년. 원교(圓教)로 만법을 섭수하니, 비로소 세상일 이 헛됨을 깨달았노라. 옛날의 학문을 돌아보니, 오히려 티끌에도 못 미치는 구나. 짐차로 선의 미묘한 도리에 능히 들어가니, 서서히 높고 견고함이 더해

간다. 의단(擬團)을 하루아침에 부수니, 통(桶)에 일곱 여덟의 구멍이 뚫리는구나. 커다란 화로위에 눈이 날리고, 돌 위에 백련(白蓮)이 피도다"(담연거사문집)권12)

또한 거사는 경론 등으로부터 시작해 결국 선으로 귀결되는 이른바 '사교입선(捨教入禪)'의 과정을 거쳤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거사는 조동종 중심이었으나 기본적으로 선교일치(禪教一致)의 사상적 경향을 보였다. 거사는 또한 징기스칸의 원정 때부터 이후 태종시절에 중서령에 재직하면서 전체적인 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거사가 중서령을 맡았을 때, 관무를 처리함에 매우 빠르고 정확해 매년 하나의 사안을 처리하면 태종이 며칠 동안 그 일을 찬탄했고, 또한 수시로 포상을 받아 거대한 재산을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거사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소식(蔬食)을 했으며, 임종에 이르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찰에 보시했다. 거사는 남송 순우(淳祐) 4년 5월에 세수 55세로 입적했다. 후에 '광녕왕(廣寧王)'으로 추봉(追封)됐고 '문정(文正)'의 시호를 받았다. 문집으로는 <담연거사집>(14권)과 <서유록(西遊錄)>이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현사신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 제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교육받아 상·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li> <li>● 모 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li> <li>● 강 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li> <li>●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역)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역)</li> <li>● 등 록 금 : 60만원(교재, 실습비, 현장학습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li> <li>-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li> <li>-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li> <li>- 상조문화와 외국장례</li> </ul> </li> <li>● 수료후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li> <li>-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li> <li>-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li> <li>- 장례관련업체 진출</li> </ul> </li> </ul>
--	---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이론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큰스님들 (법장, 승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귀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손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여
  - 불교이론, 천도재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